



2024년 6월 9일(제1197호) 연중 제10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우리는 성당에 오면 서로를 형제님 또는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형제, 자매라 하면 피를 나눈 가족끼리 사용하는 호칭인데,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부를까요?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모인, 달리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미쳤다고 생각한 친척들은 그분을 잡으려 나서고, 율법 학자들은 군중이 예수님께로 모이고 따르는 것을 시기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지지해 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써 그분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당신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단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마태오 복음 7장에 오늘 복음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일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언제든지 그 속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찾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아예 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매 순간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실행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영광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동안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일상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박형식(리피엘) 신부
한성대(제15특수임무비행단) 상당 주임

제 1 목 시
회 탐 송
제 2 목 시
복음 권호송

창세 3,9-15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2코린 4,13—5,1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복 음
영 성 제 송

마르 3,20-35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다섯 번째 시집

예수 마리아 요셉,
오두재에서, 1858년 10월 3일

파리와방선교회 신학교 지도자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공경하올 신부님

지난 2년 동안에는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서 즐거운 소식만을 신부님에게 전하게 허락하셨는데, 급년에는 매우 슬픈 소식을 주셔서 이것을 신부님께 전해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언제나 지극히 좋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만사에 항상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섭리에 온전히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때에는 근심하는 당신의 종들을 자상하게 위로도 해주시고, 또 어떤 때에는 슬픔으로 단련시켜 우리를 지혜롭게 겸손케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베르뇌 주교님과 두 분 선교사들의 입국으로 기쁨에 도취되어, 페레올 주교님과 장수 양(楊) 신부님의 선종에 대한 슬픔을 너무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작년에는 매스트르 신부님의 선종으로 또다시 쓰라린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매스트르 신부님은 말할 수 없는 노력과 말할 수 없는 긴 인내심으로 견뎌내셨는데, 마침내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어 기적적으로 조선에 입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른 이들보다 더 오래 사시기를 희망하였는데, 입국하신 지 겨우 만 4년이 지난 작년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그토록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겪으신 온갖 고초를 잘 알고 있으며, 그분의 인내심과 양순한 성격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여 왔습니다. 그런즉 신부님께서 모든 신자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가히 짐작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한

한마음 한뜻



차있던 욕심
하나하나를
내려놓고.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품었던 욕망
하나하나를

지워가며,
한뜻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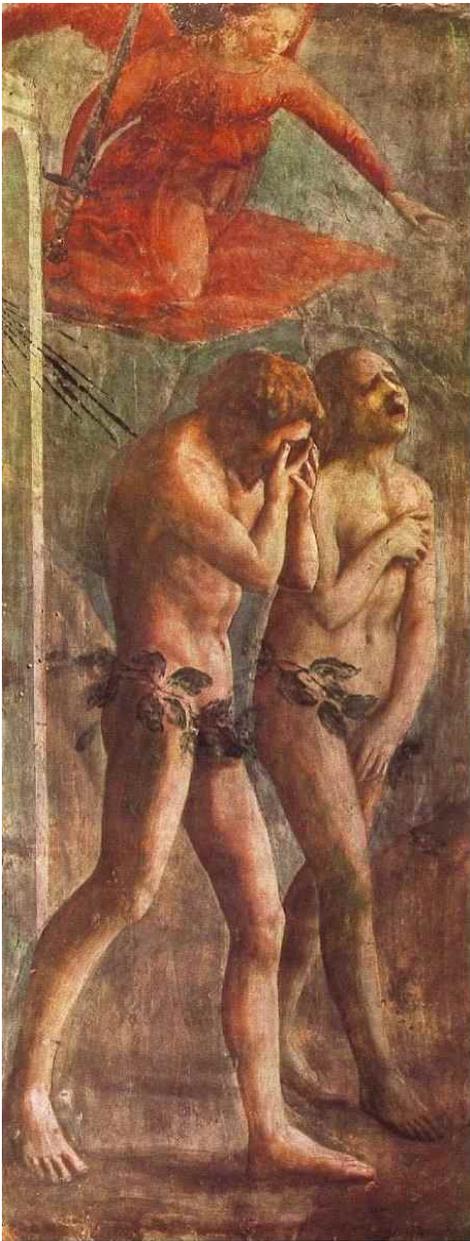
그렇게 찾은
사랑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이브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는 반면에, 아담은 수치스러움과 괴로움으로 얼굴을 감싸 안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며 아담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정신적인 죄이며, 이브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육체적인 죄라고도 분석한다. 하지만, 이브의 얼굴을 보면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인체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있는 포도 가지는 후에 덧칠된 것이며, 복원 후 지워졌다.)

이들 뒤에 큰 칼을 들고 있는 천사의 얼굴은 단호한 군인처럼 보이며, 원래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는 빛나는 은색으로 칠해졌었다고 한다. 이들 뒤에 있는, 마치 에덴동산 입구처럼 보이는 문에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형상화하듯 선들이 그려져 있다.

미시지오(1401년 ~ 1428년) / 1424년 ~ 1427년 作
 프레스코화 208X88cm

브란카치 경당, 산 마리아 델 키르미네 성당 / 피렌체, 이탈리아

이들은 순식간에 낙원에서 쫓겨나 거칠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벌판으로 내던져졌다. 이들이 느낄 절망을 우리도 또한 알기에 이 그림에 더욱더 공감할 수 있다.



김은혜(앨리스벳)

아담과 이브의 상반신 세부도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0주일: 장성 진재경 신부

◆ 교구장 동정

- 해성대(제5공비단) 성당 사목방문
 때: 6월 9일(주일)
- 주교 영성 모임
 때·곳: 6월 10일(월)~11일(화), 서울 공군(에어포스) 호텔
- 군인신학생 피정 시작미사
 때·곳: 6월 11일(화) 17:00, 수원교구 영성교육원

-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때·곳: 6월 13일(목) 11:00,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
- 한국가톨릭원목자협회
 2024년 정기총회 및 세미나
 때·곳: 6월 14일(금), 대구대학교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화해와 자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